공익재단법인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2025년3월호
vol. 228

국제플라자 뉴스

공익재단법인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880-0805 宮崎市橘通東4-8-1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
Tel:0985-32-8457 Fax:0985-32-8512 E-mail:miyainfo@mif.or.jp Homepage:https://www.mif.or.jp/korean/
개관시간:오전10시~오후7시 (화요일~토요일) 휴관일:일·월·공휴일, 연말연시 (12월29일~1월3일)

국제교류원과의 담소회♪ ※무료·사전 신청 필요

현의 국제교류원과 즐겁게 이야기해요.

★영국에서 온 캐서린 씨와 함께 이야기합시다! (일본어&영어)
◇**일 시:** ①3월 14일(금) 15:00~16:00
②3월 28일(금) 15:00~16:00
◇**마 감:** ①3월 7일(금) ②3월 21일(금)

★싱가포르에서 온 유딩 씨와 함께 이야기합시다! (일본어&중국어)
◇**일 시:** 3월 11일(화) 15:00~16:00
◇**마 감:** 3월 7일(금)

★한국에서 온 해정 씨와 함께 이야기합시다!(일본어&한국어)
◇**일 시:** 3월 13일(목) 15:00~16:00
◇**마 감:** 3월 6일(목)

◇**장 소:**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 미야자키 국제플라자
◇**정 원:** 각 4명(참여 횟수가 적은 사람을 우선한 선착순)
※신청은 전화, 메일 또는 방문 접수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문의:**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미야자키현 국제플라자 도서 코너의 소개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의 '미야자키현 국제플라자'에는 도서 코너가 있어, 1인당 최대 2권을 2주간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다문화공생에 관한 도서를 비롯한, 영어・중국어・한국어 등의 외국어도서와 일본어능력시험 대비 교재 등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플라자랑 같이 설치되어있는 교류 스페이스에서 영자 신문을 읽거나,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용해 주세요.

【미야자키현 국제플라자】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의
Tel: 0985-32-8457 Email: miyainfo@mif.or.jp
개관시간 : 오전10시~오후7시 (화요일~토요일)
휴관일 : 일·월·공휴일, 연말연시 (12월29일~1월3일)
소장도서 목록은 여기서:
https://www.mif.or.jp/korean/plaza/

일본어 자원봉사자 소개 ※무료·사전 신청 필요

미야자키현 거주로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은 분께 일본어 자원봉사자를 소개합니다.
학습 장소와 시간, 내용은 학습자와 자원봉사자가 정합니다.

◇**대 상:** 현 내 거주로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은 분
◇**신청·문의:**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국제플라자 휴관일 안내

3월 20일(목)은 공휴일로 인해 휴관합니다.

~모두 함께 길러봅시다 다문화 공생~

미야자키현에는 현재 약 1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말 시점의 통계로부터)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살펴보고,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생활하며, 다름이 있는 누구라도 건강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다문화 공생이란?

'국적과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문화적 차이을 이해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것'
총무성 '다문화 공생의 추진에 관한 연구회'로 부터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 교류협회에서는, 다문화 공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입구로서, 현민 분들에게 외국어와 외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재주 외국인 지원으로서 일본어강좌와 방재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플라자 뉴스에서는 미야자키에 거주하는 외국인 분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다문화 공생이라고 하면 난해한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미야자키에 사는 외국인 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①미야자키에서의 생활에서 마음에 드는 점을 가르쳐 주세요.
②일본에서 문화 충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③미야자키가 더 살기 좋아지기 위해 개선되길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Y. S. 씨 방글라데시 출신 미야자키 5개월 거주 일본어강좌 참가자

①미야자키 사람은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신선하고 안전해서 안심입니다.문화 충격이라 하기보다는, 이상한 점은, 일본에서는 지갑이나 핸드폰은 잃어버려도 돌려받는데, 자전거 도둑이 많은 점. (하지만 도둑맞은 자전거는 근처를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 게 또 신기해!)

② 쓰레기의 분리수거 규칙이 세세한 점. 그 자체는 좋은 것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분리수거가 힘듭니다.

③영어를 사용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힘듭니다.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교습소는 가격이 비싸고, 싼 곳은 일본어로만 수업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를 좀처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자전거가 이동 수단이지만, 좀 더 대중교통이 충실했으면 합니다.

S.T. 씨 인도네시아 출신 미야자키 약 2년 거주
기능실습생

①일교차가 크지 않아 생활하기 쉽고, 공기가 깨끗해서 건강에도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참가할 수 있는 축제나 이벤트가 많아, 외국인도 중요히 여겨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②인도네시아에서는 집 현관 등에 밤새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밤에 빛이 적은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이 매우 적어, 쓰레기를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과, 고령자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 방치된 빈집이 많은 것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작 시간 전에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는 것도 일본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③미야자키는 이미 살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대책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관광지의 접근성이 어렵고, 철도나 버스 시간을 찾는 것이 힘듭니다.

E.T. 씨 콜롬비아 출신 미야자키 33년 거주
스페인어 교사・통역

①미야자키는 안전해서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②영화 등에서 본 닌자, 사무라이, 기모노를 입은 여성을 상상하고 일본에 왔으나, 완전히 달라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인사할 때 포옹이나 입맞춤이 없고, 거리가 있는 점에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에 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신발을 벗지 않고 집에 들어가 혼나서 당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33년 전이지만 외국인이라는 점만으로도 비웃음을 사기도 해서 힘들었습니다.

③관광지나 신사 등에 영문 표기나 설명이 좀 더 있으면 외국인들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항이나 역 등에 영어 지도를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B.T. 씨 미국 출신 미야자키 8 년 거주
영어챗트 봉사자 ・정년퇴직자

①사람이 친절하고, 안전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등의 자연이 가까이 있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②세금(주민세와 사회보험료)의 부담액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많고 쓰레기를 헤집는 거에 놀랐습니다. 밤에 폭주족이 시끄러운 점이나 거기에 대해 아무도 불만을 말해 말리려 하지 않는 점이 이상합니다.

③자전거 친화적인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전용 차선을 늘린다든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한 도로의 신호나 표식 등이 희미한 곳이 여기저기 보여, 페인트를 칠해 명확히 보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태프의 한마디

본지와 이번 달 발행의 기관지 'South Wind'의 외국인 인터뷰에서 문화 충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일본인이 일본에서 느끼는 문화 충격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8살 때 처음 미야자키를 떠나 오사카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과 간사이벤 그리고 엄청난 친화력에 맨 처음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대학에는 규슈 모든 현에서 온 동기들이 있었는데, 같은 규슈여도 언어나 문화가 전혀 달랐습니다. 제 안의 '당연한 것'을 형성해 온 가족이나 미야자키의 학교라는 작은 커뮤니티에서 나와, 일본의 다양한 지역이나 사람 각각의 '다름'을 접하는 재미를 알게 됨과 동시에, '당연'이라던지 '보통'은 무엇인지 생각을 전환하기 시작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스태프:O)

3월의 이벤트

이벤트	개최일시	장 소	문의처
제11회 마쓰리 미야자키	3월 8일(토) 10:00~18:00	다카치호 도리 AMU플라자 미야자키 주변 **미야자키시**	마쓰리 미야자키 실행 위원회・MRT 0985-27-5532 https://mrt.jp/special/matsuri/
제75회 모치오 벚꽃 축제	3월 하순-4월 상순 이벤트는3/29(토) ・30(일)	모치오 공원 **미야코노조시**	미야코노조 관광협회 0986-23-2460 https://miyakonojo.tv/archives/21989

테게테게 미야자키 라이프

국제교류원
양해정

< 다카치호의 요카구라 >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치처가 미야자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부터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요카구라(夜神楽)를 보는 것입니다. 요카구라 시즌의 막바지인 2월, 마지막 요카구라가 열리는 다카치호의 가미타바루(上田原)에 향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가구라에 저희가 도착한 시간은 7시, 그리고 밖은 영하 6도… 하얀 입김이 나오는 날씨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얇은 옷으로 춤을 추는 사람들. 가보기 전에는 정말 밤새도록 한다고? 반신반의했는데, 쉬는 시간도 없이 가구라가 계속됐습니다. 그러기를 3시, 4시… 8시가 되어서도 멈추지 않는 가구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그리고 젊은이들부터 노년층까지, 모두 하나씩의 역할을 맡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나, 밖에서는 맛있는 것을 먹으며 술잔을 기울이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마을 축제로서의 요카구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33번까지 있는 가구라 중 27번까지 감상하고 돌아오는 길, 집에 가는 길 머릿속에서는 하루 종일 피리소리와 방울소리, 노래 가사가 맴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쉬지 않고 약 20분 이상의 춤들을 외워 추던 사람들과 북,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들, 모두 너무 대단한 공연이었네요! 가구라의 내용과 미야자키의 신화에 대해 좀 더 공부한 후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다음에는 어디를 가볼까요?